

나주시, 강소연구특구 2단계 확정

국비 100억 등 사업비 200억 투입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기술 육성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실증 이전

나주시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기업 유치, 연구 및 기술개발 단지 조성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육성사업 2단계로 진입한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소특구 육성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해 온 1단계 사업 성과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강소특구 2단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나주시는 2단계 사업 확정에 따라 강소특구 특화 분야인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발전 및 연계 안정화,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보다 실질적인 기술 실증과 기업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나주시는 지역 산업 연계 및 한전 2050R&D 마스터플랜, 탄소중립 기술 전략을 토대로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기술발전 및 연계 안정화, 차세대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에너지 전환 시대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실제 기술을 적용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초기 창업을 넘어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소특구 육성사업 종합평가에서 1단계 사업 성과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강소특구 2단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강소특구 사업설명회. 나주시 제공

적인 지원 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술 실증 구축 체계 마련과 에너지 특화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의 연계 R&D,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힘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기관을 거점 삼아 인근 지역을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R&D) 배후 공간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기술 핵심 기관, 나주 혁신산단 및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구개발 배후 공간으로 육성해왔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1단계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143건, 연구소와 기업 24개 설립·창업 69건, 신규 일자리 471개 창출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전력 보유 기술에 기반한 태양광, 신재생 O&M(운영·유지보수), 에너지저장 수요 기업 맞춤형 기술이전이 활발해지면서 3,560억원 규모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강소특구 2단계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공급기관 중심의 전 단계 사업에서 더 나아가 전국 강소특구 간 협력과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으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영암군, 2030년까지 고품질 쌀 품종개발 시험구 조성

영암군이 지역 농업의 미래를 견인할 고품질 쌀 품종 개발에 뛰어들었다.

영암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벼 시험포장에서 손모내기 작업을 실시하고 밥맛 좋은 쌀 품종의 생산력 검증 예비시험을 위한 시험구 조성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시험구 조성은 영암쌀 품종 육종사업의 하나로 지역에 최적화된 고품질 쌀 품종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품종육종사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흰알마름 등 병해충에 강하고, 지역환경에 잘 맞는 고유 품종 개발에 나섰다. 시험구에서는 지난해 선발된 우량계통 11개체의 수량성과 재배 적응성 등을 검증한다.

영암군 품종 육종사업은 △생산력검정 본시험 △지역 적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30년



영암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벼 시험포장에서 영암쌀 품종개발 시험구 조성을 위해 손모내기 작업을 실시했다. 영암군 제공

품종 등록과 현장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밥맛 좋고 병해충에 강한 영암쌀은 지역 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

심 자산이다”며 “행정·기술 지원으로 전국에서 인정받는 영암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장성군, 귀농인에 최대 3억원 지원

농기센터서 20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귀농인에게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오는 20일까지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농업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연 2% 이율,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

입·신축·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다. 농촌 외 지역(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장성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장성 전입이 예정된 경우,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이력이 있다면 전입 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실제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며, 융자 실행도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 신청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전일용 기자



무안군은 최근 군청 앞에서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무안군 제공

맛플무안물, 햃양파 기획전 28톤 판매 호응

무안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물’에서 진행 중인 ‘양파 소비촉진 특별 기획전’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양파 소비촉진 특별 기획전은 중만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판매 기시 4일만에 28t 이상의 무안양파가 판매됐다.

앞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파

소비촉진 기획전에서는 6,748건, 33t의 양파를 판매하며 행사가 조기 종료됐다.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지난달 26일 김산 군수가 주재한 양파 수급안정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해 추진됐다. 무안군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억원을 긴급 투입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무안양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양파 30% 할인 판매한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군, 국·도비 3000억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국·도비 확보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공모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도비 3,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각 부서의 공모사업 준비 상황과 응모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분산 기조와 함께 공모 사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회의에는 각 부서장이 참석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예정된 공모 및 건의사업을 개별 보고하고, 미응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국·도비 확보팀은 예산 확보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는 강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무안로타리클럽, 치매 환자 조호물품 기탁

무안로타리클럽은 최근 무안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조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기탁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미끄럼방지 양말, 물티슈 등 3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기탁받은 물품을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안로타리클럽 관계자는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서해해경청, 목포해양대서 채용설명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해양경찰학부 교수진과 학생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경찰의 조직과 주요 임무, 채용 계획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해양경찰 역할에 집중하며 채용 일정과 체력시험 준비 등 진로에 직결되는 정보에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참석한 한 학생은 “채용 과정과 시험 준비 내용을 직접 들으니 이해가 쉬웠고, 해양경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생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비전을 널리 알리고, 미래 인재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목포=김동균 기자



강진보건소, 청소년 금연 캠페인 전개

강진군은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강진고와 강진여중 정문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평생 금연을 다짐하는 ‘평생금연 포토존’ 기념촬영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금연 홍보물 및 리플릿 배부 등으로 진행했다. 강진군은 청소년 대상 금연 환경 조성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평생 금연을 약속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